

러시아, 석유기업 유전개발 유도

9월 석유 수출세 부과 일시중단 ... 시베리아 대형 유전 13곳 대상

러시아 정부가 석유기업들의 유전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베리아산 석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일시 중단키로 했다.

AFP 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동부 시베리아 지역의 대형 유전 13곳에서 생산된 석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빠르면 9월부터 중단해 최소 9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7월20일 보도했다.

정부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석유 수출세 부과를 일시 중단키로 한 것은 러시아 석유기업들의 유전 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 석유 생산국인 러시아는 수년간 지속된 고유가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축적했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신규유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8년 하반기 이후 유가가 급락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금융위기와 세계 원유 수요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러시아 석유기업들은 높은 석유 수출세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 수출세 인하 또는 부과 일시유예를 요구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7/21>